



'흥부가족상' 수상자 확정

우애-유선진 · 나눔-하송범 · 보은-오정섭씨

남원 흥부제전위원회(위원장 이동식)는 자체 심의를 거쳐 제1회 흥부제 '흥부가족상' 3개 부문(우애상(유선진 46, 이영면), 나눔(하송범 43, 대산면), 보은상(오정섭 54, 사매면) 수상자 3명을 확정했다.

흥부가족상은 흥부정신의 '우애, 나눔, 보은'을 실천하며, 지역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흥부제를 기념하여 매년 흥부제전위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화목한 다자녀 가정 위주로 한 명만을 선정해 수여했던 것을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대에 흥부제가 지향하는 우애와 나눔 보은이라는 가치의 소중함과 실천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수상 분야를 확장했다.

우애상 유선진씨는 2010년에 남원으로 귀농·의용소방대, 학교운영위원 등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이영면 작은 도서관 건립 등에 기여하고, 평소 극진한 부모 봉양은 물론 가족간 동기간 우애가 깊어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높았다.

나눔상 하송범씨 역시 새민금쟁비리 흥보대장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등 화목한 가정생활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보은상 오정섭씨는 농업경영인회,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사회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매년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백미 기부, 귀농자 입주 선물 증정 등을 통해 보은과 배불을 실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우체국, 추석맞이 꾸러미 100세트 전달

완주우체국(국장 박민숙)이 저소득 장애가구를 위해 추석 맞이 물품을 지원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우체국은 백민숙 국장과 안상록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유, 김, 라면으로 구성된 꾸러미 100세트(300만원 상당)를 완주군에 기탁했다.

군은 후원받은 물품을 13개 읍·면의 복지시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장애가구에 배부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인탑스 김근하 대표, 오수면에 '천사박스' 기탁

자동차 부품 및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주)인탑스의 김근하 대표가 추석을 맞아 지난 18일 저소득 가정을 돋보기 위해 600만원 상당의 천사박스 150개를 오수면에 기탁했다.

인탑스는 경기도 인양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매년 본사와 지점이 위치한 지역에 천사박스를 기부하며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천사박스에는 인탑스의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라면, 뒤집 칫솔, 마스크 등 생활필수품이 들어 있다.

이러한 오수면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 활동은 김근하 대표의 부친이자 인탑스 창립자인 김재경 회장의 오수면 오수리 출신 연결로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기부이다.

김재경 회장은 지난해에도 오수면에서 취학 중인 28명의 학생에게 1,000만원 규모의 이향 장학금을 기부하고, 또한 500만원 상당의 천사박스 200개를 오수면의 저소득 가정에 기부한 경험이 있다.

또한, 김재경 회장은 오수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오수면 고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오수면에서는 이번에 기부받은 천사박스를 오수면 행보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추석 명절 전에 오수면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노사상생 목표 20년... 지역과 함께 성장

전공노 무주지부 출범 20주년 기념대회… 무주군민 동행 노조 비전 선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19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난 발자취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조합원들의 화합을 도모해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공무원노조 박길준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전북 시·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소속 각 시·군 위원장들, 그리고 연대 단위 내외빈 등 250여 명이 함께 해 성황을 이뤘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기념대회는 '순국선열 및 민주 노동 열사를 위한 묵념과 노동기념 제창', '노조 출범 20년 역사 기념 영상 관람',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90년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공무원노조 설립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창립선언문'과 부정부래 청산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노동조권 개선, 인간의 존엄성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령' 제창, 그리고 '공무원 진군'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길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조합원이 주인인 노조! 무주군민과 동행하는 노조로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실현해 갈 것'이라며 ' 이를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



다"라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20년을 걸어 오늘에 달기까지 고생한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무주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뛰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믿음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부 회합 한마당에서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셋두리 밴드' 공연과 3부 조합원 경품 추첨 행사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 최종 선정 | 대장 서경석씨 등 7개 분야 7명 최종 선정

진안군은 19일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에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대장 서경석씨(66), 문화장 서문향임씨(67), 공의장 성수태씨(85), 신업군로장 황관선씨(75), 애향장 이상호씨(66), 효행장 미끼미구미꼬씨(56), 체육장 박천주씨(67) 등 7명이다.

대장 서경석씨는 제경진안군민회 회장(2015~18년), 부회장(2014~14년)으로 활동하며 면 단위 회장단 모임을 정례화하고 최초 여성부, 경로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향우회 활성화에 힘썼다. 또한 장학금 기탁, 집중호우 피해 농가 및 저소득 가구 지원금 기부, 도서 기증, 마령고 멘토 특강·발전기금 기탁, 일손돕기를 비롯해 고향 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문화장 서문향임씨는 민요, 농악, 시조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통예술인이다. 꽃다지 예술단을 침입해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요와 시조, 창·사물놀이, 설장구를 가르치며, 후진 양성은 물론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힘썼다.

공의장 성수태씨는 33년간 농촌지도자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통일벼 보급·재배법 전파, 농기계 보급 등 식량증산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제3회 동향면 체육진흥회장을 맡아 동향수박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다졌으며, 제4대 진안군의회 의원 임기 시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 지정문화재 관리,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했다.

신업군로장 황관선씨는 농촌지도자 진안군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촌지도자를 활성화하고 농업 새 기

술을 보급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진안군 이장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후계농업인 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애향장 이상호씨는 삼전면 출신으로 재전 진안군향우회 감사, 재전 진안군 상전면 향우회장으로 활동하며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변의 신망이 두텁다. 2019년 전국 진안향우회 추진위원장, 2023년 산민 한승현 선생 1주기 추도행사 사무국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진안의 각종 행사와 축제에 항우회원들과 함께 적극 참여하고 후원한으로써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다.

효행장 미끼미구미꼬씨는 1996년 일본에서 백운연으로 시작된 시조모,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협재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병수병을 도맡아 하며 지역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고소득을 올리는 선도 농업인이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로 봉사하고 있다.

체육장 박천주씨는 전북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퇴임 후 고향 진안에 내려와 진안군체육회 자문위원, 진안군민 골프연습장 지도자로 활동하며 지역 체육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쳐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고, 매월 시니어 골프대회를 개최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8월 한 달 간 접수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8일까지 공적조사를 마치고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한편 이번 군민의 장 시상식은 10월 12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열리는 제61회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 전주 피해자 보호센터와 협약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19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사)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단법인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주지방검찰청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단체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범죄피해자의 구조금(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등) 및 심리적 케어 활동이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속하게 연계돼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드람 김제 FMC, 백산면에 한돈정육 기탁

지평신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도드람 김제 FMC(분사장 손범석)는 19일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최미화)를 방문해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돈 정육 200kg(2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백산면은 전달받은 한돈정육 200kg를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 후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돈협회 진안지부, 추석 맞아 돼지고기 나눔

대한한돈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김송규)는 지난 18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300kg를 기탁했다.

기부한 한돈은 사회복지과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한우협회, 한우 109개 세트 기탁

무주군에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9일에는 무주군한우협회 김명섭 회장이 한우 1kg짜리 선물 세트 109개(380여만 원 상당)를 무주군에 기탁했다.

무주군 관내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업인 105명으로 구성된 무주군한우협회는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들의 소득 증가, 그리고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며 매해 명절,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전달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보건소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18일, 남원시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 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 각종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 급성심정지 환자 사망률을 저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내용은 △최초 목격자의 임무와 역할 △대마체계를 활용한 119신고 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AED) 사용법 등이며 각종 사고 현장 또는 가정에서 위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전북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MOU

정읍시보건소(소장 손희경)가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사회적 기능복귀 도모를 위해 전북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시 보건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암 생존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산체? 정신적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암 생존자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상담을 통해 사회적 기능 복귀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암 생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암 생존자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보건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의 홍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 14일 전북대학교병원 암 교육실에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매일 www.jimail.com 등록번호: 제2016-00016

2023. 11월 23일 5(금) (기자)

(전) 031-312 721-7 22 4층 (서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